



지니의 한국 사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엄마의 혼밥

빨리 먹어라, 흘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제발 이런 소리 좀 안 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속 편히 밥을 먹는 것이 오랜 소원이었다. 2007년 첫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늘상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뜨거워야 하는 음식은 다 식어서 먹기 일쑤, 잘 익은 국수는 퐁퐁 불어서 먹기 일쑤였다. 애 먹어가며 요령껏 먹는 것이 익숙해질 만하면 아이가 한 명씩 추가 되었으니 편안하고 따뜻해야 할 집밥이 나에게게는 스트레스, 난장판, 오만상의 향연이었다.

그런데 점차 아이들이 커가며 학교며 학원이며 나보다 빠듯한 스케줄이 생기고 나도 주 5일 출근하지 않다 보니 집에서 혼자 식사 할 일이 늘었다. 요즘 너도나도 즐겨한다는 혼밥을 하는 셈이다. 얼마나 소원하고 갈망했던 일이었던가…… 오롯이 혼자 조용히 내가 먹는 음식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순간을 말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특별히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도 없는데 꼭 TV를 켜거나 음악을 틀게 된다. 그도 아니면 휴대폰이라도 손에 쥐어야 마음이 편해진다. 늘 시끄럽고 정신 사나운 식사 시간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걸까? 정적이 흐르는 식사는 너무도 낯설다.

혼자 느긋하고 고상하게 한끼 제대로 챙겨 먹으면 좋으련만 나를 위해 뭔가를 요리하는 것은 왜 그리도 번거롭게 느껴지는가. 매일 네 명의 아이들을 위해 메뉴 고민하고 차리고 치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나머지 최대한 간편하게 해치우고 싶은 마

음이 굵죽같다. 아침을 굶거나 방울 토마토 몇 개 주워 먹은 날은 정오가 되기도 전부터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이게 진짜 배가 고픈 것인지 그냥 소리만 나는 것인지 언제나 불룩한 내 배를 보서는 모르겠지만 어느새 나는 어디 먹이 좀 없나 하고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부엌과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한다. 하나 남은 컵라면이나 간편식을 발견하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라도 만난 사람처럼 눈이 번쩍 뜨인다. 이도저도 찾지 못하면 배가 고프니 마음이 급해져서 요리고 플레이팅이고 다 집어치우고 손에 닿는대로 아무 접시나 가져다가 밥 한 주걱 푸고 반찬 그릇은 따로 꺼내지도 않고 대충 접시에 주워 담는다. 나를 한 접시에 이것 저것 담아 먹는 뷔페 스타일이지만 뭐 반찬은 그리 훌륭할리 없는 어제 먹다 남은 것들이다. 나를 위한 요리는 달걀 프라이 정도로 충분하다.

그래도 우걱우걱 먹기 시작하면 '아아!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요?' 싶다. 먹다 보면 밥 한 주걱 더 퍼오고 싶고 숟가락 내려놓을 줄 모르겠고 그렇게 결국 접시를 박박 긁다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된다. 아……이 죽일 놈의 입맛…… 나이 먹으면 이 맛도 저 맛도 다 그 맛이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모든게 맛있는 것일까 생각하며 오늘의 혼밥을 마친다.

암튼 이렇게 혼자 점심을 라면이나 간편식으로 대충 때우는 일이 잦아지자 남편이 "밥 먹는 게 어째 점점 어머니 닮아가네?" 라고 한마디 한다.

뭔가 달갑지 않은 사실은 늘 이렇게 가장 측근으로부터 뒤통수 얻어맞는 것처럼 깨닫게 된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다. 사실이니까. 예전에 엄마가 오후 서너 시쯤 식탁에 앉지도 않고 부엌 한켠에서 작은 공기에 밥과 반찬을 수북히 담아 5분 만에 대충 한끼 때우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그게 점심이야? 저녁이야? 아니 좀 앉아서 먹지 왜 그러고 먹어? 그릇도 좀 큰 데다 먹으면 안 돼?" 하며 말도 안 되는 짜증을 부렸건만 왜 나도 닮아가는 걸까? 정녕 엄마들의 혼밥은 좀 더 우아할 수 없는 것인가?

오늘도 내가 먹은 혼밥에 반성하며 내일은 좀 더 나를 위해 건강한 밥상을 차려 보아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5첩반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라면, 간편식, 냉동음식 등은 좀 피해보자고 말이다. 아이들 입맛을 고려하지 않고 흥가분하게 선택한 메뉴, 오롯이 차지하는 나만의 밥 그릇과 반찬, 식재료 하나하나에 초집중할 수 있는 이 여유로운 식사 시간을 좀 더 즐기고 만끽해야겠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 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럭키타이어

한국타이어 가을 대 세일

타이어 구매 권베이트 받으세요.

기간: 8/31~10/13



NEW TIRES OIL CHANGE BRAKES (714)530-2301 13128 Magnolia St. #A Garden Grove, CA 92844

